

“UAE왕실도 나주배 맛에 반해”...나주시, 100만달러 수출협약

윤병태 나주시장, UAE두바이 농특산물 수출 세일즈 결실 나주시, 두바이 '1004 GOURMET' 통해 농특산물 수출 시동

아랍에미리트(UAE) 왕실에서 맛을 인정받은 나주배가 조만간 두바이 수출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나주시장이 이끄는 'UAE농산물 수출 개척 방문단'이 지난 14일 출국해 2박4일 일정으로 현지에서 나주 농특산물 수출 판촉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방문단 활동 기간 윤 시장은 지난 15일 두바이 현지 한인 유통업체인 '1004 GOURMET'(천사마트)와 100만달러(12억8000만원) 규모의 농특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방문단에는 나주배원예농협, 곱든힐, 완도물산, 가보팜스 대표, 시의원, 나주시 유통행정팀 직원 등 11명이 함께 했다.

방문 기간 윤 시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 문병준 총영

사관과 면담을 통해 지역 농산물 수출·판로 확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D)에서 UAE와 절충교역 잔여 비용을 나주배(2000만원 어치)로 대신 지급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나주배를 전달 받은 UAE왕족은 맛에 반해 인근 오만 왕족에게 배를 선물했고 오만 왕족도 맛에 반해 추가 주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시장은 “민선 8기 고품질 나주배 생산·유통 비전을 선포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브랜드 과일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UAE왕실에서 명품 나주배를 맛볼 수 있도록 8월 조생종 배를 총영사관을 통해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주배가 UAE왕실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가져온 신고배 5상자를 총영사관을 통해 왕실에 전달토록 요청했다.

윤 시장은 다음 일정으로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두바이 해외지사에서 UAE 대형 유통업체인 ‘유니언콥’(Union Coop) 구매 담당자, 바이어 등과 농산물 수출 판로 모색을 위한 상담회를 주재했다.

윤 시장은 김혁 aT두바이 지사장에게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할랄 축산물 수출을 위한 타 국가 사례, 할랄 인증 도축장 등의 설명 듣고 나주 한우와 연계한 중동시장 수출 방안을 논의했다.

윤 시장과 방문단은 aT가 지원·운영하는 한국산 신선 농식품 홍보관인 ‘K-Fresh zone’을 방문해 나주 농·특산물 현지 홍보와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도 진행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수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이끄는 'UAE농산물 수출 개척 방문단'이 15일 UAE 현지 한인 유통업체인 '1004 GOURMET'(천사마트)와 100만달러(12억8000만원) 규모의 농특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혁 aT두바이지사장, 이동희 나주배원예협조합장, 신동철 1004 GOURMET 회장, 윤병태 나주시장, 문병준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김해원 나주시의원. (사진=나주시 제공)

상황”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

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곡성군, 워케이션 사업 본격 추진

곡성군이 곡성형 워케이션 사업인 '워크발리 지인 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 심정한옥마을의 워케이션(work + vacation)사업은 워케이션 이상의 개념을 기업에 제공한다. 특히 생활 인구 확대와 기업 정주의 새로운 인구를 형성하기 위해 워크발리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했다. 기존의 휴양이나 관광 중심의 워케이션과는 차별화되며, 잠시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몰입도 높은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110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42개

기업이 이용했고, 187명이 참여했다. 성공적인 결과를 거둬 98%의 참가자들이 재방문을 희망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에는 현대아산나눔재단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및 비영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6월 기준으로 23개 기업의 임직원 약 140여 명이 심정한옥마을을 방문해 곡성군만의 워케이션을 경험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개발자·디자이너·기획자 등 전문 직군을 대상으로 포레스트 캠프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레스트 캠프에서 생활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6월 말부터 시작해 총 6기 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곡성=양해영기자

구례군, 찾아가는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주민에게 다가가는 평생학습, 주민의 학습 참여 확대 기대



구례군은 지난 8일부터 찾아가는 평생학습 마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 마을학교란 평생학습도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 스스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마을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재 22개 마을이 지정되어 마산면 뽕천마을과 하사마을, 산동면 정산마을에서 운영되고 있고, 다른 마을에서도 6월 중에 시작될 예정이다.

웃음치료, 요가, 노래교실, 도자기, 목공예 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멀리 가지

않고도 마을 내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주민들의 참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러한 문화·여가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한 마을 어르신 및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며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나아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평생학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 최종 선정

무정면 봉안지구 돈사와 주거지 내 축사·빈집 등 정비...약취 민원 해결

담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3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2차 공모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마을 내 유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컴퓨터·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담양군 무정면 봉안지구로 무정면사무소, 무정농협 등 지역거점 시설들

이 밀집해 있어 유휴시설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돈사의 경우 환경오염과 마을 경관 훼손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돈사는 200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약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운영 반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9년 화재로 시설과 잔해가 방치되어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돈사 기준 반경 500m 이내에 천연기념물 및 지역거점 시설이 위치해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있었다. 이에 군은 돈사의 약취, 환경오

염 문제 등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무정면 봉안지구 유휴시설을 정비해 농촌을 살터지 일터, 쉼터로 되살리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총사업비 101억 원(국비 50.5 지방비 50.5)을 투자해 돈사 및 주거지 내 축사, 빈집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약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빈집을 정비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